15, December, 2025 Vol. 108

E S G

| Bi-Weekly |

신영 ESG

"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커피 맛의 변화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넥센타이어

ESG ETF 따라잡기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DRIV)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커피 맛의 변화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로 생산하는 커피 품종의 변화를 가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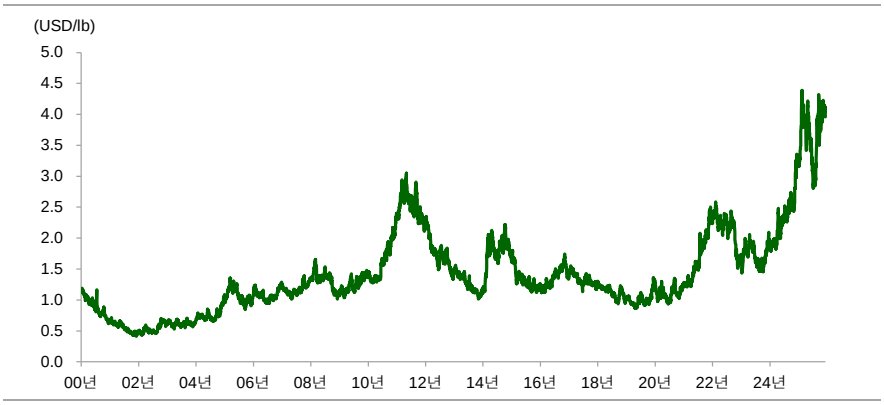
11월 들어 국제 커피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임

연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커피 가격은 지난 3분기 일부 하락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함. 트럼프 관세, 규제 리스크, 공급망 이슈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 커피 가격은 2025년 3분기에 관세 우려 완화와 공급 개선 전망으로 10% 하락하기도 했으나. 11월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다시 줄어들면서 가격이 재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커피를 둘러싼 트럼프 관세와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진입

국제 커피 가격은 EUDR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 관세 우려로 재고 비축을 목표로 한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음. 특히 올해 4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과정에서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10%의 기본 관세 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7월에는 총 관세율이 50%에 달하기도 했으며, 콜롬비아,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생산국들도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됨.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의 커피 소매 가격을 40% 이상 급등 시켰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 바나나, 소고기 등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 조치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주요 커피 공급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대폭 인하됨.

도표 1. 글로벌 커피 가격 추이 (ICE Coffee Fu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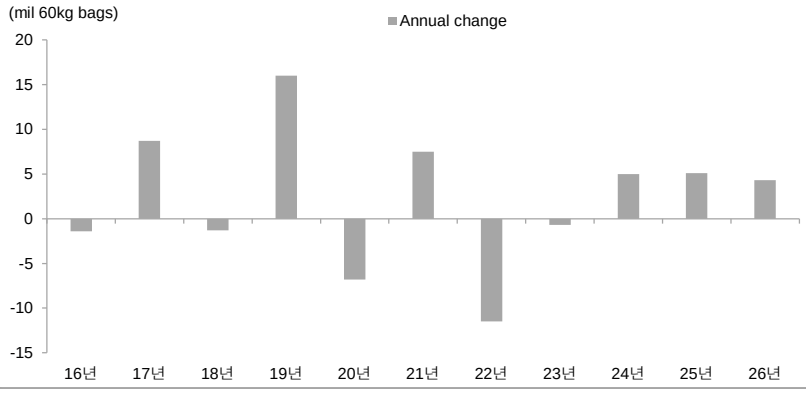
자료: CEIC, IC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 등으로 커피 가격 하향 안정화 장담하기 힘들어

이번 조치로 인해 커피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가격 하락이 관세 이슈와 규제 이슈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이는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미국에 들어온 재고 물량이나 유통 과정의 시차로 인해, 실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매 가격 인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거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특히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주요 생산국의 기후 변화 심화로 공급 충격이 우려 되기 때문임.

도표 2. 커피 원두 연간 생산량 변화



자료: Bloomberg, USD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 최대 커피 원두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5/2026년 시즌을 앞두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음. 이는 주요 생산지에서 지속적인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며 시즌 초기부터 생산량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임. 가뭄과 산불 등으로 인해 커피 꽃의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매가 자라지 않거나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령 열매가 자라더라도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아라비카 원두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 높은 기온과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원두 생산이 빠르게 확산되는 중

브라질의 2025/2026년 시즌 예상 총 생산량은 60kg 포대 기준 약 6,500만 포대로, 세부 품목별로 보면, 아라비카는 지속된 가뭄과 커피나무의 2년 주기 영향으로 생산량이 직전 해보다 6.4% 감소한 4,090만 포대가 예상되는 반면, 로부스타는 15% 증가한 2,410만 포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와 같은 구성은 기후 변화의 스트레스에 놓인 상황이란 증거임.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산지에서 아라비카 원두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 높은 기온과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원두 생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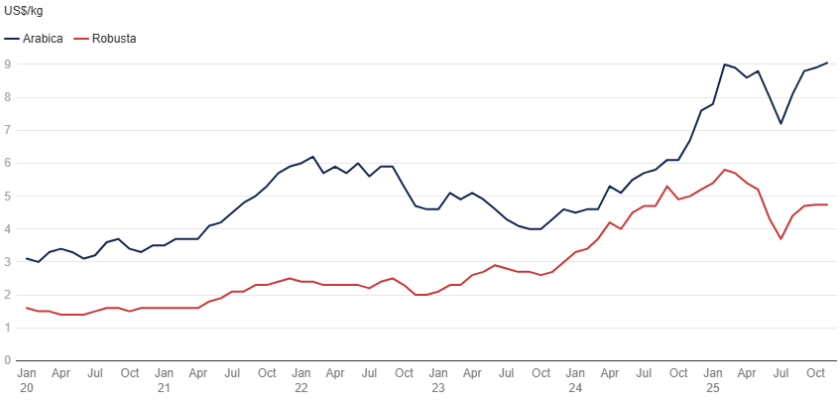
브라질 전통 커피 벨트는 남동부에 위치한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으로 비교적 고도가 높고 서늘한 날씨로 인해 오랫동안 아라비카 품종의 재배 중심지로 자리 매김해왔음. 브라질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 성장을 위한 최적 온도 범위는 18℃~21℃이며, 연평균 기온은 최대 24℃까지 견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단, 30℃ 이상의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커피 나무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성장이 저해되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극심한 가뭄과 이상 고온이 잦아지면서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품종의 전환을 본격화 → 브라질의 로부스타 원두 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81% 넘게 증가해 아라비카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중

반면 베트남이 1위 생산지인 로부스타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 보다 카페인과 쓴 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브라질에서는 아라비카 품종 보다 선호가 더 낮았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과 물 스트레스, 병충해에 더 강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아라비카 품종 보다 높다는 장점이 알려지며 브라질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에스피리토산토와 바이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품종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함.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브라질의 로부스타 원두 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81% 넘게 증가해 아라비카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에 따라 로부스타 원두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도표 3. 커피 품종별 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커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작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에 이러한 기후 변화에 다양한 적응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임

트럼프의 관세와 EUDR 규제, 공급망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한 커피 가격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같은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 위험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선 식품을 비롯해 농작물 등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이러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복 작물을 활용하여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기후에 더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임. 특히 이를 위해 정부와 국내외 연구 기관, 관련 단체 등이 합심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적응 전략을 마련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오히려 기회 삼아 미래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중국 EV·배터리 모델 흔들리자…서방, 차세대 기술로 '반격' 가속

- 중국, 차세대 고체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난항으로 2030년대 중반 이전 대량 생산의 어려움
- 서방, LMR 배터리 및 건식 전극 필름 등 혁신 기술 개발로 고체전지 경쟁에서 기술 선점 조짐
- 중국의 과잉투자 및 희토류 무기화 전략이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여,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불확실

Comments

- AI 인프라 이후 로봇 시장이 새로운 배터리 전방 시장으로 부각 중
- 휴머노이드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넘어 전고체 전지 사용 가능성이 대두
- 주요 업체들의 양산 시점과 배터리 가격, 휴머노이드 시장의 개화 시점이 주안점이 될 전망
- 주요 기업들은 2027년 이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가능할 전망

–Analyst 박진수

미 태양광 143개 기업,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정책으로 사업 마비"

- 미국 태양광 기업 143곳이 지난 7월 내무부(DOI)가 시행한 신규 허가 규정이 사실상 '전면 허가 중단(moratorium)'이라며, 의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
- 태양광 업계는 AI·데이터센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특정 에너지원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회에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공정한 허가 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

Comments

- 지난 7월에 발표된 DOI의 메모는 연방 토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부지에서의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허가 절차 강화를 다룸
- 향후 미국 전력 수요는 데이터센터 및 제조업 확장에 의해 급증 예상. 안정적 전력 수급의 중요성 증대
-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정책 변동성에도 불구, 2026~2027년 미국내 태양광 설치 수요는 견조할 전망

–Analyst 신홍주

초가공식품, 드디어 첫 소송…코카콜라·펩시코를 향한 '담배소송 모델'이 열린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초가공식품(UPF) 제조사 크래프트 하인즈,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제너럴 밀스, 켈로그, 포스트 홀딩스,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USA, 마스, 콘아그라 브랜즈 등 10곳을 상대로 공중보건 피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언론, 식품업계가 1990년대 담배소송과 유사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
- 담배업계 전철 밟나…'내부문건→합의금'구조 주목
- "과학적 정의 없어"…업계 반발 vs 규제 가속
- 식품업계, '포트폴리오·규제·소송' 3중 압박

Comments

- 제품의 중독성과 건강 위해성을 정조준 한 이번 소송이 담배업계 판례처럼 장기적 재무 부담과 포트폴리오 전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
- 이미 올해 제기된 소송이 "제품과 질병 간 직접적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어, 향후 역학 자료 축적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전망
- 또한 캘리포니아의 학교 급식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Make America Healthy Again' 구상 관련된 규제 리스크도 점증되고 있어 → 공중보건 논쟁을 넘어 식품 대기업의 중장기 전략 재편 압력으로 작용할 것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자동차/타이어 담당 문용권 T.02)2004-9175 / moon.yong-kwan@shinyoung.com

넥센타이어(002350.KS)

매수(TP 9,000원)

유기적으로 연결된 ESG 경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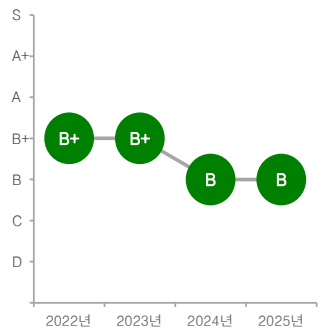
현재주가(12/12) 8,0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A+	C
Bloomberg	–	–	–	–
Sustainalytics	–	–	–	–

주: KCGS :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Sustainalytics 100~0 높을수록 상위권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12. 12)

시가총액(억원)	7,813
배당수익률(23F,%)	2.1
외국인지분율(%)	8.5
주요주주 지분율(%)	
넥센 외 2 인	69.2 %
브이아이피자산운용	5.0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4	33.1	26.6	23.6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0	8.5	-11.3	-26.4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339,226	362,361
폐기물 발생량	톤	9,677	10,795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20.0	19.9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 조직	ESG 경영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안전사고 재해율	%	0.72	0.63
기간제 근로자 비율	%	4.9	5.8
여성 근로자 비율	%	11.2	12.2
사회공헌 지출액	백만원	1,024	1,125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안전 및 보건 지원 프로그램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배제
배당실시	25 년 주당 배당금 130 원
이사회 운영 실적	7 회 실시 사외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넥센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획득

(아시아경제, 25.09.15)

- 넥센타이어는 SBTi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을 받았으며, 2034년까지 Scope 1·2는 58.8%, Scope 3는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회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ESG위원회 운영, 고효율 설비 도입,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PPA·태양광 등)를 통해 감축 체계를 강화할 계획
- SBTi 승인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넥센타이어는 과학 기반 목표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

넥센타이어, ESG 평가 에코바디스 2년 연속 '골드' 등급 획득

(시사포커스, 25.07.14)

-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골드' 등급을 받으며 전체 상위 3% 성과를 기록
- 환경·노동/인권·윤리·지속가능 조달 등 4개 전 분야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했으며,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인권경영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회사는 이번 골드 등급 유지가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넥센타이어, 주총서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26년 연속 결산 배당

(주간한국, 25.03.27)

- 넥센타이어는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금 배당,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금년부터는 주주가치 제고와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
- 보통주 기준 주당 13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하며, 최근 2년 연속 배당액을 확대하고 26년 연속 현금 배당을 지속
- 또한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를 최초로 선임하며, 재무 건전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16년	[S] 고용창출 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2020년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
	[ESG] 전 사업장 ISO 14001 및 ISO 45001 인증 전환 완료
2021년	[ESG] SHE(안전, 보건, 환경) 기획팀 신설
	[E] 재생에너지 구매(녹색프리미엄) 최초 계약
2023년	[G]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공식 신설
2024년	[ESG] 글로벌 ESG 평가기관 EcoVadis ESG평가에서 Gold 등급(상위 3~5%) 획득
	[S]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규 인정기관 선정
	[G]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2025년	[ESG] 연결 기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E] 지속가능 원재료 7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G] 전자투표제 도입 및 여성 사외이사 최초 선임
	[E] SBTi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획득

ESG 전략 - 유기적으로 연결된 ESG 경영 추진 체계를 통한 ESG 경영 실천과 내재화

넥센타이어는 ESG 전략 체계를 목적으로 6대 추진 목표(환경경영 고도화,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안전 & 인권 경영 강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준법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를 수립.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경영 주체별 실행 전략과제를 수립 계획. 아울러 이사회, 경영진, 실무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ESG 경영 추진 체계를 통해 주도적인 ESG 경영 실천과 ESG 내재화를 확대 중.

ESG Keyword - 지속 가능한 원재료와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경영

ESG 경영위원회, 전략위원회, 운영위원회로 환경경영 통합: 이사회 산하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환경경영 전략과 목표를 승인하고 관리 & 감독 중. ESG 전략위원회는 ESG 이행 현황과 환경경영 전략을 점검하며, 이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는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넥센타이어는 자원 순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원재료 사용량 대비 지속 가능한 원재료 비율을 2024년 27%에서 2030년 40%, 2045년까지 100%로 확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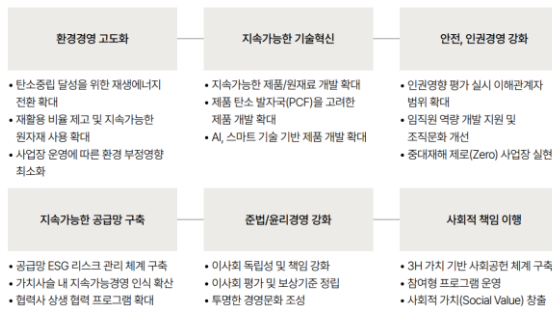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공급망 :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2024년 협력사 관리와 연관된 ESG 운영위원회 공급망 관리 분과를 신설.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을 통해 공급망 내 공정한 협력, 기업의 사회적, 환경 책임 고려 등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

윤리 및 준법 경영 & 전사 리스크 관리: 윤리 경영 이슈는 CEO와 G.CEO를 거쳐 감사위원회를 통해 반기 1회 이사회에 보고되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이며, 윤리 규범 개정을 시행하여 시행 세칙과 행동 지침을 통합하고 실천 중.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비하고 사업 전략을 제고하기 위해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무, 신용, 운영 등 총 60개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매월 대표이사에게 보고.

도표 1 넥센타이어 ESG 경영 체계

자료 : 넥센타이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2 넥센타이어 ESG 6대 추진 목표



자료 : 넥센타이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위한 '눈높이 컨설팅'의 구조적 효과

반도체 공급망은 고난도 품질·안전 기준을 요구하며, 중소 규모 협력사는 ESG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음.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는 협력사의 ESG 역량을 단순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 수준을 단계별로 상향시키는 동반성장형 모델로 기능했다고 판단됨. 특히 DS 부문 특유의 안전, 화학물질 규제 준수 체계를 협력사 수준에 맞춰 제공함으로써, 중소업체가 ESG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공정개선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급망 전체의 위험도를 낮추고, 반도체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당사는 삼성전자의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이 개별 기업의 ESG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에 구조적 효과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도표 2. KC이노베이션에서 발표한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 주요 성과

자료 : 삼성전자, KC이노베이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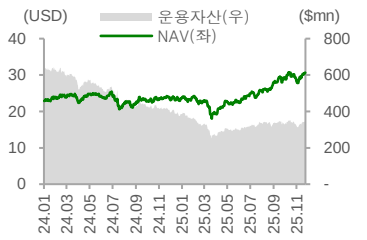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DRIV)

Key Facts	
상장일	2018/04/13
기초지수	the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Index
구성종목수	76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345.54
시장가격(USD)	30.66
NAV(USD)	30.61
총보수(%)	0.68
운용사	Global X

Top Holdings	(기준일: 2025.12.11)
ALPHABET INC-CL A	4.21%
BLOOM ENERGY CORP- A	3.55%
TESLA INC	3.47%
INTEL CORP	2.80%
NVIDIA CORP	2.57%
QUALCOMM INC	2.45%
PLS GROUP LTD	2.37%
TOYOTA MOTOR CORP	2.28%
MICROSOFT CORP	2.26%
COHERENT CORP	1.97%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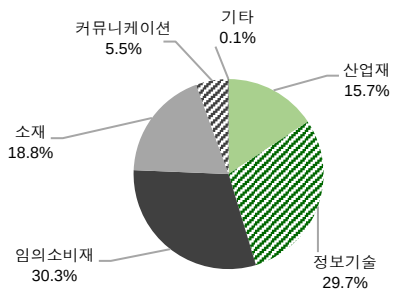
ETF 개요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DRIV)는 2018년 4월 상장된 ETF로, the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지수는 선진국 또는 한국, 대만에 상장된 기업 중 1) 신규 종목은 최소 5억 달러, 기존 구성 종목은 최소 4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으며 2)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신규 종목은 최소 200만 달러의 유동성을 가진 기업 중 3)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Electric Vehicles), 또는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거나, 해당 부품을 구성하는 화학제품·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Electric Vehicle Components) 또는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Autonomous Vehicle Technology)로 구성됨. 각 세그먼트별로 대상 기업을 평가하여 EV(15개), EVC(부품 15개 + 소재 15개), AVT(30개)으로 최종 구성되며 개별 종목 최대 비중은 3%로 제한함. 인덱스는 반기마다 리밸런싱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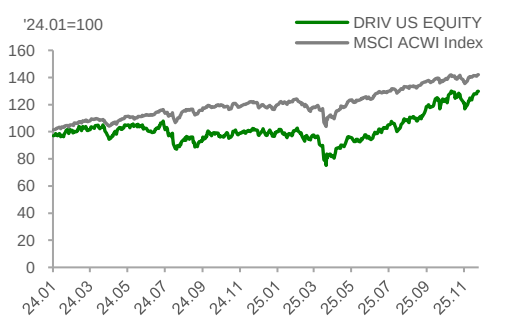
DRIV는 글로벌 자율주행차 기술, 전기 자동차, 그리고 EV 부품 및 소재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EV, 리튬 배터리와 같은 EV 부품, 그리고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핵심 EV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투자하는 ETF임. 이에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하여 투자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DRIV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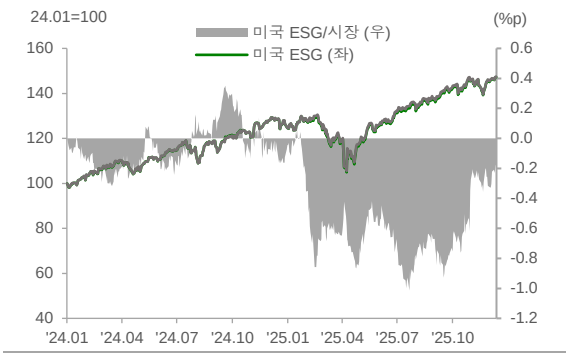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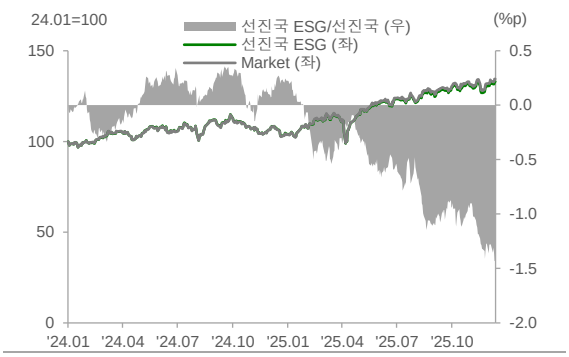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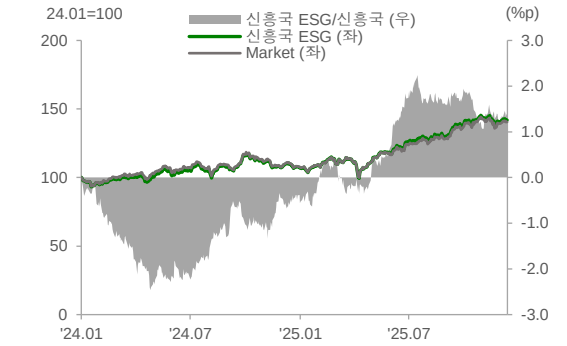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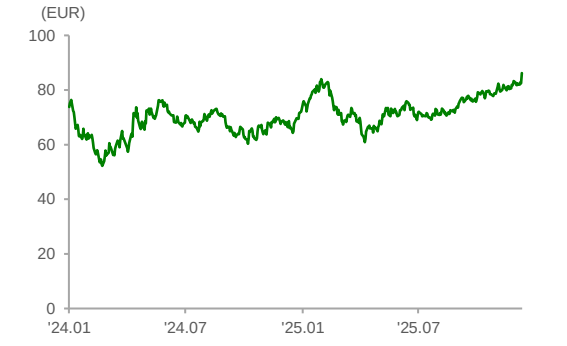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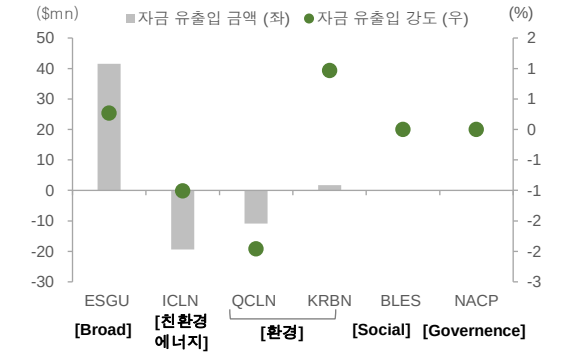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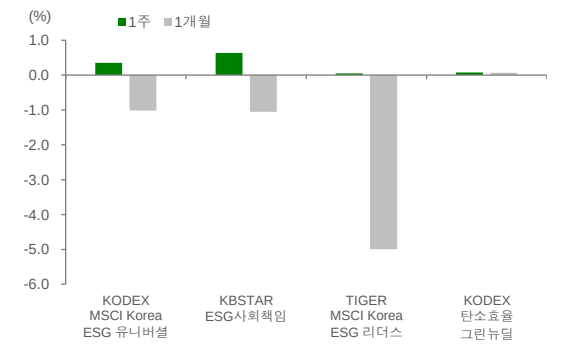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4,658	60	79.0%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0,038	13	9.4%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338	13	5.9%	13.4%
4	Social	5,636	5	5.3%	5.2%
5	Governance	408	3	0.4%	3.1%
6	기타	44	3	0.0%	3.1%
ESG 전체		**107,121**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5,458	0.23	0.49	4.75	13.96	42	91	0.3	0.6
	ESGV	11,922	0.44	0.86	4.34	14.48	18	167	0.2	1.4
	SUSL	1,025	-0.01	0.16	5.65	14.18	12	-112	1.2	-10.9
	NULV	1,939	0.15	1.15	6.78	11.45	7	34	0.4	1.7
	NUSC	1,292	1.54	3.64	5.13	14.09	5	-47	0.4	-3.6
	ESGE	5,625	0.50	-1.16	4.89	15.02	18	-59	0.3	-1.1
	ESGD	10,792	0.85	-0.11	3.68	6.05	19	623	0.2	5.8
	EAGG	4,328	0.08	-0.34	-0.39	1.80	34	565	0.8	13.1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919	-0.74	-5.22	14.26	25.92	-19	-73	-1.0	-3.8
	TAN	987	3.67	-2.32	18.68	43.85	19	-92	2.0	-9.3
Environment	QCLN	557	-0.72	-0.13	19.64	41.60	-11	-125	-2.0	-22.5
	SPYX	2,483	0.45	0.78	4.82	14.34	-15	55	-0.6	2.2
	CRBN	1,004	0.36	0.37	4.30	11.93	0	-153	0.0	-15.2
	KRBN	180	2.21	2.95	7.32	14.73	2	-49	1.0	-27.3
Social	BLES	129	0.62	1.02	2.76	7.44	0	6	0.0	4.4
Governance	SHE	284	0.74	-0.15	5.06	8.43	-1	-1	-0.3	-0.2
	NACP	59	0.22	0.63	7.71	16.68	0	-9	0.0	-14.5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19	0.35	-1.01	26.41	51.39	0.0	-20.8	0.0	-17.4
FOCUS ESG 리더스	96	-0.75	-1.25	11.48	25.45	0.0	50.0	0.0	52.0
KODEX 200ESG	540	-0.10	-1.04	28.99	55.35	0.0	-65.1	0.0	-12.1
KBStar ESG 사회책임	1,008	0.64	-1.05	31.96	58.71	20.7	-1,791.0	2.1	-177.6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13	0.34	-1.08	25.87	50.33	0.0	3.8	0.0	3.4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24	0.05	-4.99	30.49	57.83	-5.0	-44.2	-4.1	-35.8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337	0.08	0.07	23.56	45.00	0.0	-17.2	0.0	-5.1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39	0.06	0.06	23.07	43.75	0.0	-10.5	0.0	-7.6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24	0.04	0.04	23.40	44.1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2.12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5.12.02) 현대차그룹, 테슬라·GM 앞서 V2X 본격 확대… "전기차 기반 에너지 시장 진입" - Impact-on

제주 출력제어 497회… V2G 실증으로 대응
유럽은 네덜란드 중심 V2G, 미국은 V2H 확산
테슬라·GM 등도 시장 진입… 2030년 28조원 규모 전망

(2025.12.02) 스텔란티스, 독일의 배출규제 예외 요청 지지…EU는 12월 '2035 규정' 재검토 - Impact-on

중국 주도 뚜렷…그러나 투자 확대를 통해 격차 줄일 수 있어
내연기관차 판매, 2017년 정점 대비 30% 감소

(2025.12.04) 유럽배터리 9개단체 긴급성명, "탄소발자국 규정, 조속히 합의하라" - Impact-on

"규제 표류로 투자 결단 못해"… EU vs. 중국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
업계 9개 단체 공동 요구

(2025.12.04) 나이키·라코스테·슈퍼드라이, 그린워싱으로 영국서 광고금지 - 한국섬유신문

'친환경'·'지속가능성' 마케팅 규제와 소비자 보호 본격화

(2025.12.04)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플라스틱, 현 체계 유지 시 폐기·건강·비용 '3중 부담' 커져 - Impact-on

숨겨진 산업용 플라스틱까지 분석 확장…온실가스 배출 58% 급증
건강 피해도 급증…2040년 '건강한 생애 980만년' 감소

(2025.12.01) EU, 희토류 확보전 본격화…북유럽 두 광산의 서로 다른 해법 - Impact-on

레어어스 노르웨이, 보이지 않는 광산 개념 도입
스웨덴 키루나, 도시 전체 이동… "광산 확장 위한 필연적 선택"

S (사회)

(2025.12.01) 국민 4명 중 3명 정보 털린 쿠팡, 'ESG 경영' 최대 시험대에 - ESG경제

쿠팡 '로켓 성장'의 그늘…지속가능성 신뢰 한순간 추락
환경(E) 보다 더 무서운 사회(S), 거버넌스(G) 이슈 확인
진정성 있는 대책 주목…국내 기업 ESG경영에 '반면교사'

(2025.12.01) 삼성·쿠팡·SK, 누적 제보건수 최다…기업별 '구조적 리스크' 드러나 - ESG경제

제보전문 플랫폼 제보팀장, 국내 주요 대기업 제보 1274건 전수분석
2022~2025년 주요 대기업 제보 현황
통신·플랫폼 기업, 보안·데이터 관리 취약성 제보 집중
소비자 보호·노동 인권·보안·윤리 경영 강화 필요

(2025.12.01) 애플 미국서 분쟁 광물 소송에 재차 직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연관" 혐의-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인권단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과 연관된 광물 소재를 활용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

G (지배구조)

(2025.12.01) 중국 EV·배터리 모델 흔들리자…서방, 차세대 기술로 '반격' 가속 - Impact-on

중국, 차세대 고체전지 전환 난항…서방 기술 선점 조짐
과잉투자 현실화…희토류 무기화 전략도 '자충수' 가능성

(2025.12.04) 쿠팡 김범석 의장 차등의결권은 더 큰 법적책임 근거 - ESG경제

데이터 리스크,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
성장 위해 '기술 부채' 확대를 용인하도록 만든 자원배분체계의 잘못
기업가치 평가시 데이터 보호역량 핵심지표化…'데이터 ESG' 도입해야
플랫폼기업에 '기술 진보'보다 중요한 건 그를 통제하는 '거버넌스의 깊이'

정책 ESG 뉴스

ESG

(2025.12.02) "시장 이미 반응하는데"…아시아는 규칙 정비, 한국은 법정 공시 시기조차 없다 - Impact-on

아시아는 로드맵 완성, 한국은…언제 적용할지 '미정'
'외부 비용의 내부화'… 금융·보험·회계가 본 기후금융의 숙제

(2025.12.05) COP30 가로막은 6대 지정학 장벽...이상과 현실의 간극 확인 - ESG경제

미국 부재 속에 실망과 실낱 희망 동시에 남겨
러시아·산유국 뭉쳐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거부
중국 관망 속에 환경이상주의 유럽과 브라질 타협
환경 외교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 한계 노출도

E (환경)

(2025.12.03) 육상 풍력발전 2035년까지 5배 늘린다…범정부 전담반 구성 - ESG경제

육성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발전단가는 크게 낮춰
205개 사업 중 98개가 22개 법령 인허가에 발목잡혀
'저주파 소음' 등 환경·주민생활 악영향 대책은 빠져

(2025.12.03) 내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배 증액…전기차 전환 보조금도 ↑ - ESG경제

기후부 예산 올해 대비 9.9% 증가...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폭 36.4%
RE100·햇빛바람소득·영농형 태양광 등 금융지원 예산 6480억 편성
전기차 '전환' 시 보조금 100만 원 추가 지급...구매보조금 단가는 유지

(2025.12.08) 미 태양광 143개 기업,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정책으로 사업 마비" - Impact-on

내무장관 승인 없이는 허가 불가… 500개 이상 사업 지연 우려
"에너지원 차별 중단하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시기"

(2025.12.08) 인도, 태양광 제조 과잉경고…"통합형 투자 우선, 청정에너지 자금 축소는 아냐" - Impact-on

과잉공급 경고에 '조정된 금융' 주문…독립형 모듈 증설 타깃
"청정에너지 전반 중단 아냐" 해명…통합형 설비 투자에 방점

(2025.12.08) EU 전기차 전환 계획에 제동… 6개국 "2035 내연기관 규제 재검토해야" - Impact-on

"기술 중립성 보장해야"… 하이브리드 허용 요구
현실 벽에 부딪힌 급진적 '전기차 올인'
투자 방향성 잃은 기업들,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시급

(2025.12.01) NGFS, 기후 시나리오 5년 만에 전면 개정…중앙은행·감독당국 위한 실무 기준 제시 - Impact-on

'기후 리스크는 전통 리스크와 다르다'…시나리오 분석 의무화 흐름 강화
2100년 장기 시나리오에 더해 첫 '2030 단기 시나리오' 도입

(2025.12.03) 유럽 경영대학원들, "탄소 줄이라 가르치듯 우리도 줄이자" - Impact-on

"말만이 아니라 실천"… 배출 보고·여행·식단까지 손본다
"스스로 배출 감축하라"…보고 기준 제각각, 투명성 요구 커져

(2025.12.04) 베트남, 냉방·ETS 통합한 첫 국가전략…ITMO 기반 시장 메커니즘 도입 - Impact-on

'국가 지속가능 냉방계획' 발표… 냉매·건물·가전 효율 전면 개선
ETS 시범사업과 투트랙 전환 로드맵 구축
탄소시장과 결합된 '냉각 서비스' 모델 도입
국제사회, "동남아 냉방정책의 시험대"

일반 ESG 뉴스

ESG

(2025.12.08) CSRD 보증 첫해, 재무감사급 검증 체제로… 핵심은 "20% DMA·60% 내부통제" - Impact-on

킹피셔, "보증은 데이터가 아닌 과정의 문제"
20% 이중중대성 평가, 60% 내부통제 마련, 20% 외부 보증 투자해야
ESRS, '공정한 발표' 원칙 이후 바뀐 사항
"디지털·자동화 내부통제' 필요

E (환경)

(2025.12.03) 기후 변화가 바꾼 브라질 '대표 작물' 로부스타 약진, 소비·가격·무역까지 흔든다- Impact-on

기후 변화가 바꾼 브라질 '대표 작물'
로부스타 약진, 소비·가격·무역까지 흔든다

(2025.12.01) 전자폐기물 6200만톤 시대…EU 규제 강화에 리퍼비시 시장 '급부상' - Impact-on

EU 규제 강화…리퍼비시 전략 부상
레노보, 14개국서 인증 리퍼비시 서비스 출시

(2025.12.01) "탄소 다음은 메탄"… 엑스프라이즈, 2026년 글로벌 기술 경연 준비 - Impact-on

최대 5000만달러 상금 조성… 연간 100톤 감축 실증 요구하며 기술 상용화 경쟁 본격화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이 우선순위로 부상
대회 설계…연간 메탄 감축량 실증해야
상금 규모 2000만~5000만 달러…2006년초 출범 예상

(2025.12.01) 바이오 CO_2, e-연료 산업의 '가장 큰 병목'로 부상…EU CCUS 인프라 경쟁 본격화- Impact-on

바이오 CO_2 수요 2050년 최대 4억 톤 전망
EU, CO_2 운송 인프라 구축…CO_2 운송 비용 e-연료 생산비의 10% 미만

(2025.12.02) AI 골드러시 폭발…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인력난, 연봉 3억에도 숙련 인력 못 구한다 - Impact-on

빅테크 수백조원대 투자, 건설 전쟁 점화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급여, 디렉터급 연봉 3억 육박
높은 연봉에도 이직률 32%, "급여만으론 부족"

(2025.12.02) "위험 줄이면 비용도 준다"…美 노스캐롤라이나 '회복력 연계 재난채권'에 6억달러 몰려 - Impact-on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투자와 연계'…혁신적 구조 선보여
설치 가구 2만여 채 돌파…재난 채권, 3.5억달러 목표에 6억달러 몰려

(2025.12.05) 플라스틱 '먹어 치우는' 미생물의 정체, 제주 앞바다서 찾았다 - ESG경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플라스틱 분해 핵심 미생물 'WED208' 규명
중간물질 BHET 30% 분해… "자연계의 '이어달리기' 시스템 확인"
세계 각국는 지금 플라스틱 생물학적 분해 연구 골드러시

S (사회)

(2025.12.08) IEA, 에너지 분야 고용 증가했지만…"숙련 인력 부족이 에너지 전환 속도 저해" - Impact-on

전력 부문 고용 확대 가장 커…에너지 고용 추가의 75% 차지
숙련 인력 부족…원자력·전력망 분야 고령화 속도 빨라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신규 인력, 현재보다 40% 증가해야

G (지배구조)

(2025.12.01) "자사주 소각, 한도 없는 '경영상 목적' 예외 조항 삭제해야" - ESG경제

기업거버넌스포럼 "과도한 자기주식 보유 정당화 우려"
주주 충실의무 원칙과 충돌…논의서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절차 남용 자본시장의 역사…또 다른 절차적 면책 수단 제공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0930)	매수 : 87.41%	중립 : 11.89%	매도 : 0.7%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넥센타이어	-	O	-	-	-	-	-	-

2025-12-15

넥센타이어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5-12-15	매수	9000		
2025-02-10	매수	9000		